

제주문화의 재창조

김 현 돈

1. 개방화시대의 문화

90년대에 이르러 우리사회에서 가장 위력적인 담론은 뭐니뭐니 해도 세계화와 개방화라 할 수 있다. 거대담론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모던한 사회에서 역설적이게도 세계화는 또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우리 삶의 지배적인 원리이자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세계화는 자본축적의 위기에 이른 세계자본주의가 자본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 간의 장벽을 철폐하자는 교묘한 자본의 논리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상호경쟁의 논리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의 논리적 함의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과 동구권 등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세계체제를 우르과이라운드와 WTO로 대표되는 미국 주도하의 단일한 자본주의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가 표방하는 탈규제의 개방지상주의와 경쟁력지상주의는 세계화논리의 양대 실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 세계화는 곧 ‘초일류기업’이나 ‘세계경영’ 같은 기업광고 속에서, 쌀과 농산물을 비롯한 외국시장의 전면개방 바람 속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영어과의 열풍 속에서 피부로 실감되고 있다. 2등은 필요 없고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무한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지식의 의미는 생존의 필요성에 따른 한갓된 도구적 기능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60년대 개

발독재의 망령은 90년대에 이르러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로 변신해 국민 전체의 조화로운 삶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착잡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 것’을 찾고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질 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시장도 세계시장으로 문화도 세계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강변한다. 민족문화, 민중문화, 지역문화를 얘기함은 시대에 뒤떨어진 담론으로 치부된다.

2. 문화와 환경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고 가공하여 얻어낸 정신적 산물과 생활양식의 총체를 지칭한다. 흔히들 제주문화를 이야기할 때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다른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양식과 종교와 의식구조를 달리하면서 고유한 역사 발전 방식을 가지고 생성되어 온 것이 제주도 문화이며 이러한 문화가 생성된 배경에는 대체로 아열대성 고온 다우성의 기후와 거친 바람, 화산활동의 결과로 인한 척박한 토질 등 기후와 풍토적 조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러한 기후와 풍토적 환경이 특이한 가족제도와 주거문화를 이루었고 의식구조까지도 지배하여 원시종교 형태의 무속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의 생성과 변동의 요인을 기후와 풍토적 환경에서 찾는 이러한 견해는 환경 결정론이 갖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주도 문화 연구는 환경적 요인에서 문화의 특성을 규명하려고 했다. 특히 최근의 연구 가운데 송성대의 ‘해민정신(Seamanship)’은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는 제주도의 정신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화산회토로된 山高原野의 風多島’라는 제주도의 환경적

요인(‘삶에의 자극제’)을 전제로 하여 출발한다. 그리하여 구룡성 산지의 한반도의 전통문화는 혈연의 씨족연합사회로서 선비양반의 문화이고 종법사회의 문화이며 대륙민의 문화이고 지주경제의 문화이지만 위와 같은 환경조건에서 생성된 제주섬의 전통문화는 씨족결합의 지연사회로서 평민·평등사회의 문화이며 도시해양민의 문화이고 자작경제의 문화라고 한다. ‘해민’은 일찍부터 거친 바다와 싸우며 어로와 해상활동을 해 온, “그 유명한 덕관배의 대선단을 이루어 한반도의 해안과 동아시아 바다를” 누비며 제주섬을 지켜온 사람을 일컫는다. 제주인의 정신은 “개체적 대동주의로 표상되는 해민정신이다. 그 해민정신을 되찾아 고양하는 제주섬의 르네상스 운동이 절실하다. 해민정신이야말로 동양적 시민정신으로 금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해민정신은 제주인의 공동체 이념으로서의 ‘제주이즘(chejuism)’이며 자랑스런 ‘지역정신’이자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정신(Globalism)’으로까지 그 의미가 격상된다.

여기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해민정신’에서 찾고 있는 바, 해민정신이 표상하는 진취적 정신이란 바다를 주요한 생존의 무대로 삼아 온 대부분의 도서지역 주민들이 가진 공통적인 정신으로서 ‘제주이즘’으로 내세울만한 변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이른바 제주정신이나 탐라정신, 삼무정신, 이 해민정신에 이르기까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제주인의 독특한 정신문화에서 찾고자 함은 단일한 상징적 가치로 지역사회를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과거 ‘새마을 정신’과 같이 이데올로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결정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환경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문화해석의 부적

절한 이론틀인 결정론적인 설명의 범주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정론의 한계는 인간과 환경 간에 문화와 환경 간에 기계적인 인과관계만을 적용하여 양자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인간은 한편으로 환경에 구속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환경 결정론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몽테스큐, 록크 그리고 멘스의 예술사회학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멘스는 15세기 피렌체 회화의 선적 양식과 16세기 베니스 회화 및 17세기 네델란드 회화의 색채적 양식을 서로 비교하여 건조한 기후에 지리적으로 평원이나 산이 많은 지방은 선적 회화를, 다습한 해양성 기후는 색채적 회화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건조한 지방에서는 선이 한층 더 돋보이며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먼저 선이지만 공기가 습윤하고 대기가 색채적인 곳에서는 화가의 눈은 색채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멘스의 이러한 분석은 18, 19세기 프랑스란 동일한 지리적, 기후적 환경에서 나온 다비드의 선적 회화와 들라크로와의 색채회화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회화 양식의 변화도 그렇지만 시야를 넓혀 문화일반의 변화에 있어서도 기후나 풍토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하나의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독립변수로 주도적인 작용을 할 수는 없다. 그 보다는 오히려 당대 사람들의 세계인식의 태도와 방법, 역사적 배경, 체험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본다.

3. 제주문화는 독특한가?

민속과 관련하여 제주문화의 특성을 40년대까지의 생활양식에서

찾는 현용준은 50여년 간에 걸친 제주도의 의식주 생활과 생업기술, 세시풍속, 통과의례 등의 변화상은 과학성과 합리성, 간소화, 편의성의 방향에 따른 것인 데, 이러한 변화는 민간 자체에 의한 변화보다는 행정이나 언론, 교육 등 문화지도층의 의도적인 유도에 의한 변화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변화는 되어도 제주도 문화의 본질에 비추어서 그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현용준, 1996)고 했다. 여기서 문제는 제주도 문화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나는 점이다. 제주도 문화의 본질을 막연히 50년 전까지 전승되어 온 제주도의 민속 속에 담긴 ‘제주도민의 지혜와 정신’(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깊은 문제의식 없이 동의하고 있는 ‘삼무정신’이나 ‘조낭정신’을 제주도민의 전통적인 지혜와 정신으로 본다면 이를 제주 문화의 본질로 여겨 외래문화 수용과 변화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삼무정신은 과거 빈한했던 생활 속에서 나타난 한 특징적인 현상이며 조낭정신은 이름만 달리했지 제주도가 아닌 육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부상조의 전통은 늘 하나의 미덕으로 있어 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제주문화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돌하르방도 그 기능과 형태에 있어서 육지부의 ‘장승’과 흡사한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육지부의 장승이 유입되어 변형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제주문화의 독특성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선 남방기원설, 몽골기원설, 제주자생설 등이 있으나 육지부의 석장승이나 벽수와 관련짓는 시각이 주목을 끈다. 즉 민중의식이 성장하던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 이전까지 내려오던 용암석을 이용한 다양한 석상조각의 전통이 조선 후기 육지부에 넓게 퍼져있던 석장승 또는 벽수들과 만나면서 제주도의

돌하르방문화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학적인 표현이나 조형적 측면에서 이들의 상통성이 잘 드러나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또 지금도 제주도 성읍마을(옛 정의고을)에선 돌하르방을 ‘벅수머리’로 부르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러한 시각은 설득력을 가질만 하다.

타문화에 대해 자문화의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문화중심주의는 지역민의 정체를 내세우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문화를 합리화하고 다른 집단의 문화와의 동화를 좌절케함으로써 자칫 타문화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지역문화 연구에 있어서는 인간과 문화와 환경과의 변증법적인 상호침투 관계를 인식하여 한국 전체 문화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비교문화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거의 사라졌거나 잊혀져 가고 있다. 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부터 새마을 운동과 70년대 이후 본격화된 관광개발, 부동산 투기붐, 항공노선의 확충으로 인한 육지부와의 시 공간 단축 등에 의해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해체되면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화석화된 형태로 민속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관광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문화는 변화되거나 굴절되기 마련이다.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수도 있다. 다만 전통문화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상실되는 걸 우려하거나 탓하기 보다는 전통 속에 농축된 선인들의 삶의 정서와 정신을 오늘날의 삶과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접목시켜 되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 즉 어떻게 전통문화를 현실문화의 창조적 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전통의 겉껍질에 연연해서는 어떠한 발전적인 문화도 기대할 수 없다.

4. 전통문화의 왜곡 굴절

본래 어느 땅 어느 곳에서든 민중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은 건강하였다. 건강한 미의식은 민중의 전통적인 미적 감수성에 기초해 있다. 민요나 민화, 무속화, 탈춤, 판소리 등 민중의 전통적인 예술양식에는 창조자와 향수자가 분리되지 않고, 일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은(일하는 사람들에게 놀이는 일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일놀이는 일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일이다. 들놀음이나 마당춤, 화전놀이 등을 생각해 보라.), 생산 현장과 생존의 터에 기반한 건강한 미의식이 옳이 녹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시대 민중의 건강한 미적 감수성이 일제 강점기 식민지 문화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해방 이후 식민지 유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릇된 제도교육 및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흘러 들어온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또 최근의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굴절되거나 왜곡되어 급기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기층민중들의 삶과 정서가 진솔하고 생생하게 반영된 토착민요의 건강한 미의식은 1930년대 당시 새로 들어온 일본식 트롯트 가요와 결합되어 이를테면 “봄이 왔네 봄이 와/숫처녀의 가슴에도/나물케러 간다고 아장 아장 걸어 가네/산들 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타령이 절로 난다”와 같이 퇴폐 향락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신민요’로 변질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적 감수성이 외래 양식의 혼입으로 왜곡 굴절되는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미술에서도 형편은 대동소이하다. 18세기 후반 봉건사회 해체기에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겸재 정선 등은 당시까지 지배적이던 중국의 관념 회화의 미의식을 불식하고 주체적인 미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산수를 그렸고 민중들의 삶의 정서가 넉넉한 해학과 풍자정신으로 녹아든 풍속화를 그려 내어 근대미술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

나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민중적 미의식은 그 이후 한일합방을 계기로 급속히 일본의 미적 정서에 동화되어 버렸다. 20세기 초 일본에 유학한 고회동이나 김찬영 같은 이가 습득해 우리나라에 전파시킨 서양미술 양식은 인상주의의 밝은 외광표현에 상투적인 아카데미즘의 미적 규범을 가미한 이른바 ‘절충식 아카데미즘’이었다. 전통적 미감이 거세된 이러한 몰주체적 양식이 20년대 선전(일제의 문화통치 전략상에서 나온)과 1949년부터 70년대까지의 국전을 지배했다. 색감과 필치에서 그대로 일본식 정서가 묻어난 회고조의 ‘향토적 서정주의’였다.

5. 전통문화의 참된 계승

우리 것은 소중하고도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무조건 타자를 배척하는 그릇된 문화적 복고주의나 수구주의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부르짖은 ‘민족문화 창달’은 허약한 권력의 정통성을 호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용했음을 알고 있다. 현장을 많이 제정하고 구호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권일수록 민주적 정통성의 기반이 부실한 정권이었음을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가 증명한다. 상징적 가치체제로 집단을 통합하려는 저의가 명목상의 현장과 걸치례의 구호를 만들어냈다. 단일한 기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집단의 의사를 통합하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 맹목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계승하여 참된 민족문화의 터밭을 일구는 밑거름으로 삼는 일이다.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느냐의 문제는 전통은 어떻게 현대와 만나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의 참된 계승은 전통과 현대의 얼치기 만남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행복한 만남으로 가능한 일이다. 우리

는 오늘날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의 일치기 만남을 목격한다. 그것은 마치 양복위에 갓 쓴 불쌍사나운 물골처럼 보는이들을 우울하게 한다.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절집은 하나 같이 철근 콘크리트로 석가래와 기둥의 형체를 만들고 그 위에 페인트로 울긋 불긋 단청을 흉내낸다. 전통의 양식 속에 담긴 미감과 정서를 무시한 편의주의적 건축의 절정이다. 추사적거지와 지근 거리에 있는 대정향교도 이런 희한한 물골을 하고 있다. 풍수지리적 통찰에서 나온 기능성과 처소를 무시하고 여기 저기 관광지의 울타리를 장식한 방사탑의 모양새나 해안도로를 만든답시고 외적에 항거한 조상들의 피땀어린 환해장성을 서슴 없이 허물어뜨리는 행태도 보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이 세계화시대 제주도 문화행정의 현주소다!

전통과 현대의 행복한 만남은 전통과 현대의 변증법적 통일로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형식과 본질의 양 면에서 전통과 현대 속에 깃든 낡고 부정적인 요소는 버리고 새롭고 긍정적이며 창조적 요소는 보존하여 보다 발전적인 차원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6. 발전적인 제주문화론을 위하여

개방화 시대의 제주문화의 조감도를 그려보기 위해 제주문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과 그에 따른 문화일반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피력해 보았다.

보통 개방화 시대의 문화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세계문화의 보편성을 인정하여 민족문화, 지역문화의 개별적 가치를 회의하고 부정하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세계문화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민족문화, 지역문화의 개별성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둘 다 바람직한 문화론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개방화에 위기를 느낀 나머지 “오직 우리 것이 최고다. 우리 것을 지키자”는 심

정적인 ‘개방화 시대의 문화논리’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논리는 지역문화 이기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의 맹목성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제주문화의 독특성과 정체성을 제주도 지역의 해양환경적 요인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무슨 무슨 주의나 사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자칫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역 통합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타문화를 수용하고 타문화와의 동화를 그르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제주지역의 문화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항상 타 도서지역과의 비교 문화적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또 한반도의 전체 문화 속에서 지역문화의 성격과 위상을 파악하려는 시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 결정론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서 당대 사회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적 관점이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체험 등 중층적인 시각의 확보가 필요하다. 결국 개방화 시대의 바람직한 문화론은 지역문화의 개별성과 세계문화의 보편성을 함께 아우르는 총체적이고도 변증법적인 방법론에 의존하는 것이 옳다.